TV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40 굿모닝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1~2부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아침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어머님의 내며느리〉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30 나는 몸신이다	00 KBS 네트워크 특선 촌촌촌 55 안녕 우리말	00 월화 드라마 〈발칙하게 고고〉(재)	00 그린실버고향이 좋다	10 KBC 생활뉴스 30 닥터365 35 세계문화탐방 지구촌축제
12	40 채널A뉴스 특보	00 KBS 뉴스 12		10 MBC 정오 뉴스 20 통일전망대	00 SBS12뉴스 50 닥터 365
0	5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별가족(재)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시간을 달리는 TV(재)	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00 KBC 열린토론회(재)
2		00 중계방송 제53주년 소방의 날기념식 30 녹화중계 국회 인사청문회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스페셜	00 키즈사이언스5	0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3	00 이언경의 직언직설	55 튼튼생활체조	0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30 자동공부책상 위키	00 MBC 뉴스 10 똑?똑! 키즈스쿨 55 타스의 풀이풀이 사자성어	00 SBS 뉴스 10 잘 먹고 잘 사는 법 식사하셨어요?(재)
4	3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세계인 스페셜 20 취재파일 K	00 TV유치원 30 이욱정PD의 요리인류 키친(재) 40 동물의 세계	2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너 같은 딸〉(재)	00 민영방송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다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5	50 김승련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안녕 자두야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생방송 투데이
7	10 닥터지바고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다 잘될 거야〉	15 일일연속극 〈위대한 조강지처〉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돌아온 황금복〉
8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5 우리집 꿀단지	30 2TV 저녁 생생정보 2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발칙하게 고고〉	00 월화 특별기획 〈화려한 유혹〉	00 창사 25주년 특별기획 〈육룡이 나르샤〉
Ø	00 밀착토크 풍문으로 들었소	00 KBS 뉴스라인 40 TV,책을 보다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기행길	15 힐링캠프 500人
12	30 충격 실화극 싸인(재)	35 해외걸작 드라마 〈닥터 후〉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MBC 뉴스24 35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35 나이트라인

EBS₁

	EBSe 생활 영어	
	건강한 아침	
	요리비전 2015 청춘인문강좌(재)	
	정글에서 살아남기	
	변롱뽀롱 뽀로로(재)	
	로보카 폴리	
08:00	딩동댕 유치원 1	
	Why 최고다 호기심딱지	
	딩동댕 유치원 2	
	두다다쿵	
	딩동댕 유치원 3 코코코 다코	
	크레멍의 창의력 팡팡	

09:40 부모-생활보감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1:10 문화유산 코리아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EBS 스페이스 공감1(재) 13:05 지식채널e 13:10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3:50 오스카의 오아시스 14:00 미술탐험대 14:30 놀이터 구조대 뽀잉

15:15 꼬마기사 마이크 15:30 세계사 시간여행 15:40 모피와 친구들 15:50 크레멍의 창의력 팡팡(재) 16:30 코코코 다코 16:45 딩동댕 유치원 1~3(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 17:45 로보카 폴리(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 18:05 캐니멀 18:2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2 18:25 두키탐험대 18:4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3

18:55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4 19:00 정글에서 살아남기(재) 19:30 EBS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중국 간쑤성, 문명의 길을 걷다〉 21:30 한국기행 〈가을 추풍령〉

21:50 EBS 다큐프라임〈넘버스〉 22:45 달라졌어요 23:35 프레임人 24:05 지식채널e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에-	-알짜개념〉	13:05	수능특강	light	〈영	어-독해)
00:50	″ 고교 E	Basic Gram	mar-junior	14:00	파이널 실	전모의고	<u> </u>	〈국어A)
01:40	"	〈문학-	-알짜개념〉	14:50	올림포스	〈문학-	-알짜	개념〉(재
02:30			〈미적분Ⅱ〉	15:40	"		⟨□ 조	[분II](재
03:20	"		〈수학 I 〉	16:30	"		〈수	학 🕩 (재
			〈미적분Ⅱ〉	17:20	<i>"</i> 평	가문제	⟨□ 조	[분II](재
05:00	뉴탐스런		〈물리〉	18:10	2016 N제		((국어 A)
06:00	"	<	생명과학(>	19:10	"			(영어)
06:50	"	〈동	아시아사〉	20:00	EBS스타	강사 특	강	
07:40	"	〈윤	리와 사상〉	20:50	인터넷 수	능		
08:30	2016 수능	개념 (윤혀	정의 국어〉		〈화법과 직	남문&독/	네와 된	H법 A형
09:20	"	〈심주	석의 수핵〉	21:40	"		〈문학	·A형〉(재
10:10	파이널 실점	전모의고사	〈영어〉	22:30	최태성의고	교서에	나오는	불교문호
11:00	"		〈수학A〉	23:05	인터넷수능	< <br< td=""><td>독해연</td><td>습-종합)</td></br<>	독해연	습-종합)
12:15	올림포스	〈국어I-알제	자개념〉(재)	23:55	지식채널	Э		

EBS플러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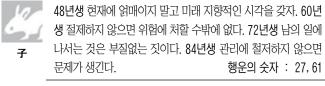
07:00	무역영어 1급 시험	대비 강좌		대비특강		〈국어 3	-2>
07:30	9,7급 공무원 시험	대비 강좌	15:50	"		〈국어 4	-2>
08:30	AT자격 시험대비	강좌	16:20	"		〈국어 5	-2>
09:00	즐거운 수학 EBS	MATH	16:50	"		〈국어 6	-2>
09:10	TV중학	〈국어(1)(2)〉	17:20	초등수학	개념잡기		
09:50	"	〈수학1(상)〉	17:50	다큐 오늘			
10:30	"	〈역사 1〉	18:00	TV중학	<	국어 (5)	(6)
11:10	"	〈국어(3)(4)〉	18:40	"		〈수학3(상)〉
11:50	"	〈수학 2(상)〉	19:20	필독중학 /	네계사		
12:30	실전취업가이드		20:00	EBS 기획	특강		
13:10	등업신공	〈수학1(상)〉	20:50	EBS 기획	시리즈		
13:50	중간, 기말 시험대	비 문제풀이	21:40	EBS UCC) 공모 나	피디	
		〈과학 1-2 〉	22:00	중간, 기밀	시험대비	l 문제풀	0
14:30	등업신공	〈수학2(상)〉				〈과학	2>
15:20	초등 기말학업성추	도 평가	22:40	등업신공		〈수호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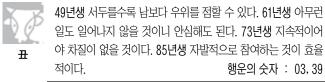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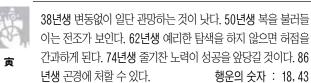
11월 9일(음 9월 28일 己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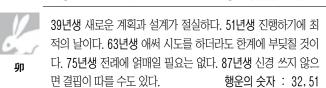
행운의 숫자 : 09,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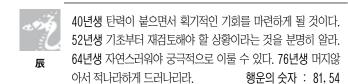
행운의 숫자 : 25,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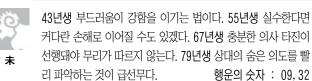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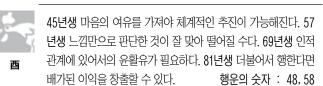
41년생 여러 가지를 감안하지 않으면 무리가 따른다. 53년생 지 나치다면 낭패를 보게 될 것임에 뻔하다. 65년생 지연돼 왔던 일 의 물꼬가 트이리라. 77년생 애매한 입장이라면 아예 관여하지 않음이 백번 나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7,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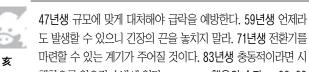
42년생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느니라. 54년생 모순된다면 양자 모두를 차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66년생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 와 상담하는 것이 상책이다. 78년생 결코 감정적으로 대할 일이 아니니 차분하게 대처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55,64



44년생 아무리 궁리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56년생 기초 가 부실하면 사상누각이 되는 법이다. 68년생 검증된 계획이라 야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80년생 한계를 벗어난다면 중차대한 단처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57,36



46년생 작은 이익을 꾀하려다가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 58년생 행하고 싶지 않거든 잠자코 있는 것이 백번 낫다. 70년생 여러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가하게 되는 변수가 보인다. 82년생



소신껏 행하면 그만이다.

행착오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92,93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88년 '깨알 복고'에 시청자 응답하다

tvN '응답하라 1988' 동시간대 시청률 1위

1988년은 '쌍팔년'이라고 불러줘야 제맛이다. 당시 담배는 '팔팔'이 최고였고, 한강 남쪽을 끼고 달리는 자동차전용도로 에는 '팔팔올림픽대로'라는 이름이 붙었다. 여기에 '88꿈나무' 라는 표현을 적절히 구사하면 그 시절을 온몸으로 관통했다는 증거가 된다.

이 모든 '현상'은 1988년 9월17일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성대한 개막식을 한 '88서울올림픽' 때문에 일어났다.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던 27년 전의 서울에 서는 "손에 손잡고"가 울려퍼졌다.

6일 밤 첫선을 보인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은 바로 그 때 그 시절로 시청자를 순간 이동시켰다. 첫회의 시청률은 6. 7%(이하 닐슨코리아 유료플랫폼), 순간 최고 시청률은 8.6%로 집계됐다. 케이블·위성·IPTV 통합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며 '응답하라' 시리즈의 명성을 이어갔다.

"스마트폰도, 인터넷도 없던 그 시절 우리는 무엇을 하며 시 간을 보냈을까"라는 배우 이미연(이미연은 1988년 가장 인기 가 있던 청춘스타였다)의 부드러운 내레이션으로 문을 연 드라 마는 정이 넘치고 꿈이 커갔던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골목 을 중심으로 다섯가족의 면면을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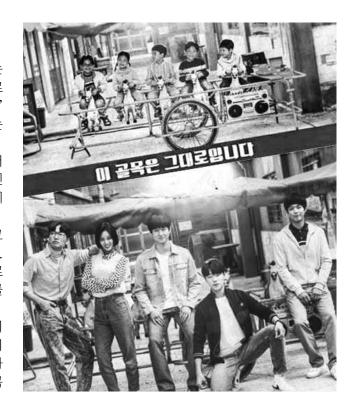
'꽃보다', '삼시세끼' 시리즈 이전에 tvN의 대표 얼굴이 됐 고, 전작인 '응답하라 1997'(2012)과 '응답하라 1994'(2013)의 성공에 힘입어 시청자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등장한 3탄 '응답 하라 1988'은 첫회 '손에 손잡고'에서 바로 시청자를 추억의 도 가니에 빠트렸다.

88서울올림픽 이면에 자리한 철거민의 눈물과 노동자의 고 통, 사회의 온갖 부조리와 정권의 비리는 화면에 등장하지 않 는다. 대신 '지나간 것은 모두 아름답다'고 믿게 만드는 최면가 스로 화면을 가득 채우며, 아직은 인심과 정이 넘쳐나던 시절 '팔팔'했던 17살 고등학생들의 시선으로 1988년을 돌아본다.

변진섭과 이문세의 노래가 울려퍼지고, '영웅본색'으로 대표 되는 홍콩영화 신드롬이 일어났으며, 고등학교 한 학년 동급생 이 보통 1천500명이 됐던 그 시절에는 식구가 많아 후라이드 치킨은 물론이고, 계란 후라이도 늘 모자랐다.

생크림 케이크가 등장하기 이전에 버터 케이크가 있었고, 월 드콘이 무려 300원으로 출시돼 '경악'하던 시절이었다.

드라마는 '응답하라' 시리즈의 명성에 걸맞게 '깨알 복고'의 재미와 감동에 대한 기대를 배신하지 않았다. 비디오 테이프로 TV를 녹화하고 카세트 테이프로 가요를 늘어지게 듣던 주인 공 학생들의 엄마들은 미장원에 나란히 가서 '빠마'(퍼머)를 한



후 저마다 보자기를 둘러쓰고 집으로 돌아와 두어 시간 콩나물 과 멸치를 다듬다 다시 미장원으로 가서 보자기를 풀었다.

전작들과 가장 달라진 점은 주인공 가정의 식구가 늘어났고, 가정 형편이 쪼그라들었다는 점이다.

'응답하라 1988'의 성덕선(혜리)은 '징글징글한' 3남매의 둘 째다. 그것도 전형적인 '둘째의 설움'을 제대로 보여주는 캐릭 터다. 여기에 1997년과 1994년에는 각각 프로 야구팀 코치였던 성동일은 1988년에는 한일은행에 다니는 화이트칼라로 변신 했지만 빚보증을 잘못 선 덕분에 다섯 식구가 반지하에 세들어 사는 신세가 돼버렸다.

한푼이 아쉬운 집안의 서러운 둘째 딸 성덕선은 그러나 예쁜 외모와 이름만큼 착한 심성, 특유의 깡을 무기로 잘 큰 모양이 다. 이미연이 내레이션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장면에서 27년 후 오늘의 '성공한' 성덕선으로 등장해 깜짝 재미를 안겨줬다. '응 답하라' 시리즈가 주인공의 어제와 오늘을 다른 배우로 캐스팅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연은 성덕선과 같은 1971년생으 로 올해 마흔다섯이다.

드라마는 전편들과 마찬가지로 주인공 성덕선의 현재 남편 이 '그 시절 친구들' 중 과연 누구인지에 물음표를 둔 채 이야기 를 전개해나간다.



빅뱅 '멜론뮤직어워드' 아티스트상 등 4관왕

앨범상 엑소·핫트렌드상은 '무한도전' 수상

빅뱅이 7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2015 멜론 뮤직 어워드'(MMA)에서 대상인 아티스트상 과 베스트송상, 네티즌 인기상 등 4관왕을 거머쥐었다.

빅뱅은 아티스트상 수상 소감에서 "데뷔 10주년을 앞두고 오랜만에 다섯 명이 모두 참석한 시상식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음악과 무대를 보여 줄 수 있는 진정한 아티스트가 되겠다"고 밝혔다.

베스트송상에는 중독성 있는 가사와 화려한 변주가 특징인 빅뱅의 '뱅뱅뱅'이 뽑혔다. 빅뱅은 시상식에서 지금까지 방송 무대로 선보이지 않은 '이프 유'(IF YOU)를 노래했고 '루저', '뱅뱅뱅', '맨정신', '판타스틱 베이비'까지 이어지는 현란한 무 대를 선보였다.

앨범상에는 발매 40일 만에 73만 장이 판매된 엑소의 정규 2 집 '엑소더스'(EXODUS)가 선정됐다.

신인상의 영광은 보이그룹 아이콘과 걸그룹 여자친구에 돌 아갔다. 아이콘은 벅찬 표정으로 시상대에 올랐고 여자친구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음원 판매량과 투표로 10명의 가수를 선정하는 '톱10'에는 에이핑크, 빅뱅, 엑소, 산이, 자이언티, 샤이니, 소녀시대, 씨스 타, 토이, 혁오가 올랐다.

발라드상은 백아연의 '이럴거면 그러지말지', 댄스 부문은 방탄소년단의 '아이 니드 유'(I NEED U)와 레드벨벳의 '아이 스 크림 케이크'(Ice Cream Cake), 랩·힙합 부문에는 매드클 라운의 '화'가 선정됐다.

알앤비·소울 부문은 나얼의 '같은 시간 속의 너', 록 부문은 김성규의 '너여야만 해', 팝 부문은 마크 론슨의 '업타운 펑크' (Uptown Funk)가 차지했다.

핫트렌드상은 올해 여름 음원 차트를 점령한 MBC 예능프로 그램 무한도전 영동고속도로 가요제가 받았고 뮤직비디오상 은 박진영 '어머님이 누구니'에게 돌아갔다.

영화 '검은 사제들' 개봉 3일만에 100만명 돌파

'베테랑' '암살'과 같은 흥행 신기록

김윤석, 강동원 주연의 영화 '검은 사제들'이 개봉 3일 만에 관객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영화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가 8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달 7일 오후 9시30분 께 '검은 사제들'의 누적 관객 수가 100만39명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개봉 3일째 100만명 돌파는 올해 '천만 영화' 대열에 들어선

'베테랑', '암살'과 같은 흥행 신기록이다. 11월 개봉 영화 중 역 대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운 '인터스텔라'와도 같은 속도다.

'검은 사제들'은 뺑소니 교통사고 이후 의문의 증상에 시달 리는 한 소녀를 구하기 위해 분투하는 두 신부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김윤석, 강동원이 신부로 출연한다.

'검은 사제들'은 5일 개봉 이후 줄곧 박스 오피스 1위를 유지 하고 있으며 예매율 역시 50%를 넘어서며 흥행몰이를 이어가 고 있다.

/연합뉴스